



도시적 맥락과 건축

Urban Veins & Architecture

안건혁 / 명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Ann Keon-Hyeok

앞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로 도시의 개성과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이 도시간 경쟁시대에 주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역시 역사, 문화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보전하고,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도시적 맥락을 이어가는 일은 단 기간에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건축가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수준과 관련지어 도시개발의 발전단계를 구분한다면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살 수 있는 도시'로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만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살만한 도시'로서, 도시가 어느정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 도시환경이 갖추어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세가지 단계중에서 우리 도시개발은 어디에 속할까? 아마도 이제 겨우 첫 단계를 벗어나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급급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국민소득이 일단불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이 도시환경에 거는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초에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는 당연히 좀더 나은 삶과 이를 가능케 하는 도시환경의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의 목표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살만한 도시'가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기능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다만 '살기좋은 도시'란 한마디로 쾌적한 도시를 말한다. 전문가들간에 공통된 견해로는 풍부한 녹지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도시, 문화적인 도시가 쾌적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은 도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가는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도시의 기본이지만 정작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면, 역사성과 문화성을 겸비해야 선진도시로 각광을 받는다.

도시의 문화성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과 가로공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축물은 3차원적인 도시공간 구성의 중심요소로서 건축물이 지니는 양식과 디테일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가로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외부공간으로 그 속에 시대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건축과 가로공간은 어우러져 도시적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성을 논할 경우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도시적 맥락의 특성이 강할 경우에 우리는 도시가 개성있다고 하고, 그 맥락이 문화적 특성을 보일 때, 도시의 문화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 맥락은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도시를 다른나라의 도시들과 구분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도시의 가로경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시에도 뚜렷한 도시적 맥락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대답은 부정적이다. 도시적 맥락의 미약함과 모호함은 도시경관의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도시의 실제 모습이다. 양질의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니면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온 건축심의과정에 대해 건축가들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건축물 외관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는 도시적 맥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축적 실험행위도 건축가의

창작적 의도라 주장할 때는 제재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파리나 런던과 같은 곳에서는 건물의 외형이나 재료 등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어도 우리도시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껏해야 건축설계상 오류, 예를 들면 내부 계단의 위치나 화장실의 설계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러한 요구는 원래 심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도시 특성에 따라 각각의 도시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일본인지 미국인지 알기 힘든 국적없는 경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이 안되는 거리 모습,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역사도시인지 신도시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개성은 앞으로 매스컴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동질화가 가속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도시의 도시적 맥락이 부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관심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도시경제의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도시의 모습도 급변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시적 맥락이 축적되기 힘들다. 문화정책과 도시정책의 결여와 함께 정책결정자들의 무관심, 무지도 많은 이유중의 하나이다. 문화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도시의 문화성이 낮은 것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물량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도 아직 문화공간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시의 가로와 건물들,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자체가 도시의 문화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도시문제의 해결사인 도시계획가들도 다를 바가 없다. 도시계획은 지난 30년간 개발에만 매달려 왔다. 개발이란 본래 경제성을 높이는 행위인 만큼, 경제성을 희생하는 어떠한 문화보전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치요, 낭비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외면하고 있다. 도시문화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건축가들조차 도시에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도시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자유의 공간이다. 건축을 구속하는 것은 건축법과 조례, 그리고 잘못된 제도와 관료주의의 악습과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 등이다. 이러한 것들만이 건축가의 창작의지를 가로 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건축가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된 설계도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건물의 위치와 입지해석이 중요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설계서가 주변상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인접도로의 보도가 차도와 분리되어 있는지, 보도폭이 얼마인지, 인접지의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조차 않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교육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건축설계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건축의 디테일이나 평면구성, 건축양식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도시적 맥락의 해석이나 인접건물과의 관계를 짚어주는 교수나 Critic은 거의 없

다. 이렇게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는 건축가들에게 도시적 맥락의 보전과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반 시민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문화는 도시환경과 보통 사람들의 도시생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 공연장과 문화시설, 특정계층에 속해 있는 먼나라 이야기이다.

전통양식이 저층의 목구조가 대부분이어서 현대적인 생활양식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 관리나 생산비가 엄청나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적 맥락의 단절이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있다. 도시의 맥락은 지역단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가로를 따라서도 이해된다. 그런데 서양의 도시들이 가로를 중심으로한 동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전통적 도시이해방식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동적 활동이 강조된 현대도시에서 이러한 정적 도시이해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를 도로중심으로 이해하는 서구식 개념은 십여년전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도시의 열개를 엮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체제는 블럭단위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로 도시의 개성과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이 도시간 경쟁시대에 주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역시 역사, 문화자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보전하고,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문화적으로 특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얼마 남지 않은 문화적 공간과 도시적 맥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는 우리생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공간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도시화도 둔화되어 가고 있으니 만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다듬는 일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지를 만들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는 도시공간의 인식,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달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들도 전체 국민이 바라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행할 수 없다.

도시적 맥락을 이어가는 일은 단 기간에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건축가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